5천여 고려인의 삶터 월곡동, 문화·복지·교육·행정 아우르는 통합형 복합센터 필요

■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 추진위원회 출범' 기념 특집 ②

1921년 5월 3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한인 학생음악단이 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리역에 도착했다. 남자 7명과 여자 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연해주에 정착한 조선인 후예들이었다. 광주에서는 최흥종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역으로 나가 이들을 맞았다. 음악단을 광주로 초청한 단체는 최흥종이 이끌던 광주청년회였다.

이들의 광주 방문은 단순한 순회공연이 아니었다. 나라를 잃고 연해주로 떠났던 한인 동포들이 음악을 통해 모국과 만난 자리였다. 광주 시민들은 낯선 북방에서 찾아온 동포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고, 광주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숙식비도 부담했다. 음악은 바다와 국경을 넘어 흩어진 민족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됐다.

당시 광주와 연해주 사이에는 이미 심리적 유대감과 의미 있는 교류가 형성돼 있었다. 특히 최흥종은 연해주 동포음악단을 초청하고 환대하는 일에 앞장섰다. 고난받는 이웃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던 그의 삶은 광주가 오래전부터 간직해 온 환대와 연대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로부터 105년이 흐른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 폐막작 '유산'은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의 비극을 무대 위에 되살렸다. /글=이박행 본지 주필



고려인마을 지속 가능성 결정하는 핵심은 다음세대 교육
한국어집중교육·기초교과학습 및 디지털·문화교육 공간 절실

센터 기획·운영 고려인 주민 직접 참여 민·관 협력체계 갖춰야
"선주민과 이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플랫폼 역할을"

문화·복지·교육·행정을 한곳에서

월곡동에 조성할 고려인마을 복합센터는 문화와 복지,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거점이어야 한다. 고려인 주민이 센터를 찾아오면 체류와 노동, 주거와 의료, 자녀교육과 노인돌봄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기관까지 연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려인은 한민족의 후손이지만 오랜 중앙아시아 생활로 인해 상당수가 러시아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에는 체류자격 변경과 국적·귀화, 취업과 임금, 주거계약과 건강보험, 자녀의 입학과 진학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업무는 출입국·고용·교육·복지·보건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어와 행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사정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한다. 필요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긴다.

복합센터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다국어 행정상담과 통·번역을 지원해야 한다. 출입국기관과 고용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현장상담도 필요하다.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복지와 의료·돌봄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고려인마을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출산·양육 가정, 홀로 사는 노인 등 다양한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 맞벌이와 교대근무 가정을 위한 방과후 돌봄과 긴급돌봄, 부모교육, 보육상담이 필요하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무료급식과 건강관리, 방문돌봄, 치매 예방과 여가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언어 문제로 진료가 늦어지거나 치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통역과 병원 동행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고려인광주진료소와 지역 병원, 보건소가 협력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를 연계한다면 복합센터는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건강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의 교육이 공동체의 미래다

고려인마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은 다음 세대의 교육이다. 중도입국 학생들은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한다. 부모 역시 한국의 교육제도와 입시·진학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돕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복합센터에는 한국어 집중교육과 기초교과 학습, 방과후교실, 진로·진학상담, 디지털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학교와 교육청, 대학이 참여하는 교육협력망도 필요하다. 대학생 멘토링과 장학사업, 직업체험, 대안교육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

고려인 청소년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선주민과 이주민 청소년이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며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경험이 축적될 때 학교와 마을 안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기억을 보존하고 세계와 나누는 공간

복합센터는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문화교류의 거점이 돼야 한다.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이 소장한 기록과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수장고와 아카이브, 연구실과 기획전시실을 확충해야 한다. 고려인 어르신들의 구술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고, 연해주 이주와 1937년 강제이주, 중앙아시아 정착과 대한민국 귀환의 역사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는 사업도 시급하다.

소규모 공연장과 연습실, 전시실, 영상제작실을 마련해 고려인 음악과 무용, 연극과 문학, 음식문화를 시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려인 청년 예술가와 지역 예술인이 함께 작품을 창작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기능은 2027년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 국제기념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월곡동 복합센터가 국내외 고려인 공동체와 중앙아시아, 조선대학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잇는 상설 교류 거점으로 성장한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 디아스포라 문화교류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한 세기 전 환대를 오늘의 제도로

고려인마을 복합센터의 주인은 고려인 주민과 지역 시민이어야 한다. 센터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 고려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산구, 교육청, 의료기관, 대학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고려인 주민을 상담원과 통·번역가, 문화해설사, 교육강사와 행정지원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합센터는 고려인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고려인이 직접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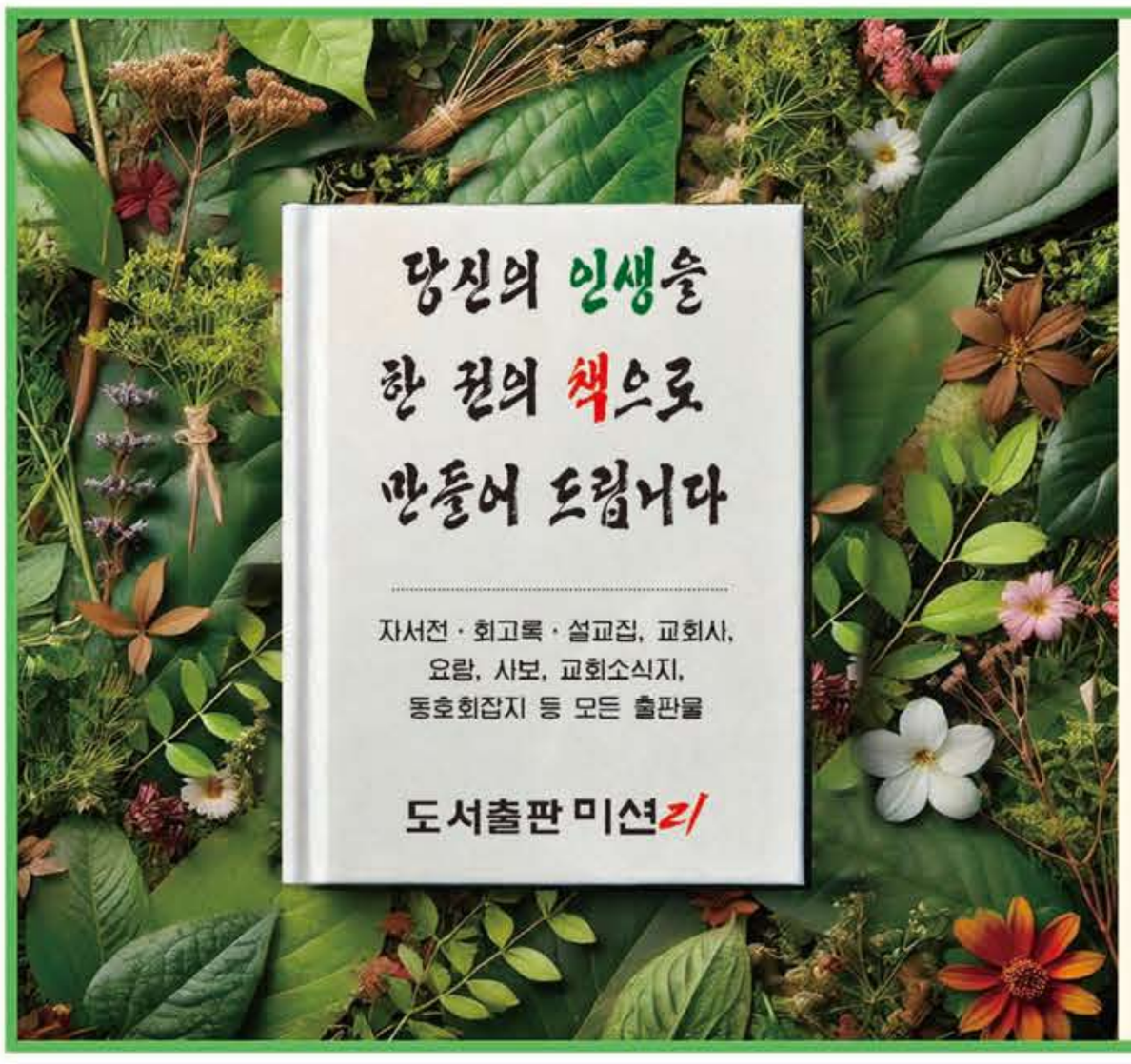
또한 이곳은 고려인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시설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문화를 배우며 마을의 문제를 논의할 때 복합센터는 서로 다른 공동체를 연결하는 사회통합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월곡동 고려인마을은 단순히 이주민이 모여 사는 거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귀환동포를 어떻게 맞이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다음 회에서는 고려인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한인의 온전한 귀환과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보완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를 살펴본다.











한 평생 앞만보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달려온 인생길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틈틈이 기록해 온 글들, 오래된 책갈피에서 툭- 튀어나온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자서전, 회고록 등으로 지나온 삶의 궤적을 남겨 보십시오.
도서출판 미션리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집 · 교회사 · 사보 · 교회소식지 등 어떤 형태의 인쇄물도 언론사 경력 30년이 넘은 전문 편집인이 도와드립니다.
원고정리에서 교정, 편집 · 디자인 · 출판까지 맡겨주세요.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도서출판 미션리 TEL 062-367-9109, FAX 062-367-910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69 (3층) / E-mail : phj2930@nate.com